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 전면 재검토

부지선정 한달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반발로 운시장 “의견 수렴” ... 2025년 완공 차질 불가피

광주시가 폐기물·하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반발이 일자 첨단3지구 개발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 심혈관질환센터’ 등이 들어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 사업은 지역 현안 중 하나지만 광주시가 건립 최적으로 선택된 장소를 전면 재검토 하면서 오는 2025년 완공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9일 광주시와 첨단3지구 개발 폐기물·하수 처리 시설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운장현 광주시장

과 대책위는 지난 27일 면담을 갖고 첨단3지구 개발 사업 계획과 관련해 사업부지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광산구 비아동, 북구 월출·오룡동, 전남 장성군 남면 일대 380만여㎡를 2025년까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에 지난 9월 예정 부지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시작했지만, 대책위는 사업 계획대로 광산구에 폐기물·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될 경우 광산구 주민 7만3000여 명이 유해 물질과 악취 등에 노출될 기

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산단 조성 예정부지 반경 1km 내에는 유아교육시설·초중학교·요양원·아파트·상가 등이 밀집해 있어 건강·생활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지난 27일 면담을 통해 “광산구 지역에만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운 시장에게 대책을 요구했다.

운 시장은 면담에서 “계획을 재검토하고, 집담회를 열어 광산구·북구·장성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발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 등을 통해 사

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지 확정 미뤄지면서 또다시 주민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해야하는 등 후속 작업이 늦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첨단3지구에는 인공 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 심혈관질환센터, 의료용 생체 소재 부품산업 집적화 단지 등 연구·의료·산업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주거·상업시설도 개발된다.

시는 광주연구개발특구 활성화와 기반확대를 위해 기업설립 지원을 통한 연구소 기업 54곳(민선6기 44건) 설립과 유망기술의 발굴 및 기업이전 1310건, 이전기업 자금지원 430억원 등을 지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유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서울시청 전시

31일까지 특별 순회전 힌즈페터 다큐 영상도

세계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된다.

이번 ‘서울시청 특별 순회전’은 영화 ‘태시운전사’의 흥행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이 함께 준비했다.

서울 특별순회전은 영화 ‘태시운전사’에서 만실(배우 송강호 분)의 “렛츠 고! 광주!”라는 대사를 차용해 “Let’s Go! Gwangju!! : 광주로 갑

시다”라는 제목으로, ‘1980년 광주의 진실을 바로알고, 5·18정신을 계승해 내일로 가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 당시 시민이 작성한 유인물 원고, 당시 촬영된 사진, 공무원이 기록관 일지, 1988~89년 광주청문회 속기록(이상 복본)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과 1980년 당시 광주를 촬영했던 워르네 힌즈페터가 남긴 다큐영상, 사진 등도 함께 전시한다.

또 최근 공중자격으로 이수화되고 있는 전일빌딩 탄흔(재현물 및 영상)과 관련 전시물과 1980년 이후 5·18 진실규명운동 관련 기록물도 전시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고창 모양성제 ‘담성놀이’ 27일 오전 전북 고창읍성에서 열린 ‘모양성제’에 참가한 여성들이 머리에 돌을 얹고 성을 도는 ‘담성놀이’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사업화 ‘쟁걸음’

센터 20억 규모 기술이전 협약

광주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이 사상 최대 규모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등 사업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9일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 BIOT INC (대표 장영준, 미국 Delaware주)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기술이전 규모는 선금실시료 20억원, 경상실시료 매출 2% 수준이다. 이는 마이크로의료로봇 전문연구센터가 들어선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은 그동안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에서 연구해온 ‘줄기세포(성체) 정밀유도 마이크로의료로봇’에 대한 전담대 특기기술로 전자장교를 개발해 2015년 추가로 기술이전하는 성과도 됐다. /윤현석기자chadol@

kwangju.co.kr

적수 등)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도·치료하는 내용이다.

광주 첨단산단에 있는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는 세계 최초 마이크로의료로봇 연구센터로 국비 225억원과 시비 50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건립됐다. 현재 63종의 연구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17억여 원이 추가 구축될 예정이다.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마이크로의료로봇 산업을 2013년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다. 특히 사업을 주도해온 연구진들은 2001년 대장내시경로봇 개발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캡슐내시경을 개발했다. 이 기술들은 각각 2005년 세계적 기업에 기술이전 됐다. 또 연구진은 더욱 진보된 능동캡슐내시경을 개발해 2015년 추가로 기술이전하는 성과도 됐다. /윤현석기자chadol@

“개헌 수혜자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 광주경총 강연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개헌의 수혜자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광주경총총협회 조찬 포럼 강연에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 지향적인 개헌, 열린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아홉 차례 개헌했는데 4·19혁명 이후 내각제 개헌과 현행 ‘87년 헌법’을 제외하면 나머지 일곱 차례는 권력자가 본인 필요에 따라 추진했다”며 “30년 전과 의식 자체가 달라진 만큼 새로운 헌법이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분리”라고 설명했다.

답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방향으로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권이 핵심”이라며 “수평적 분권이란 입법·사법·행정의 완전한 분리”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다”며 “촛불 혁명의 요구는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꾸자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다”고 덧붙였다. 수직적 분권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분권”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 자율권을 지방에 줘야 한다”며 “중앙에서 과도하게 쓰는 재정도 지방에 보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촛불집회 1주년에 대해서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50년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거듭나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촛불 혁명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며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등산 개방 2만명 다녀가

지난 28일 울릉도 두 번째 개방된 무등산 정상에 2만여 명이 다녀갔다.

이번 개방은 지난 2011년 5월 첫 개방 이후 20만여 명이다. 탐방객들은 서석대에서 부대후문을 통과해 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람하고 부대정문으로 나오는 0.9km구간의 가을단풍과 역새가 장관을 이룬 비경을 감상했다.

광주시는 이번 개방 행사에서 내년 4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지원하는 홍보캠페인과 2017 가을여행주간(10.21.~11.5.)을 맞아 ‘무등산 가을낭만 역새콘서트’와 함께 역새편 만들기 체험행사, 무등산 사진전 등을 진행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019년 나노의료분야 학술대회 광주서 열린다

市, 서울·제주와 경합 유치 성공

나노의료 분야 전문 학술대회인 ‘제13차 2019 IEEE NANOMED’가 2019년 하반기에 광주에서 열린다.

‘2019 IEEE NANOMED’는 전기전자공학 분야 저명한 학회인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자전기공학회) 산하 4개 기술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IEEE NTC(IEEE Nanotechnology Council, 국제전자전기공학회 나노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나노공학·분자

과학 관련 학회다. 의학분야에 적용된 미세공정기술, 광학분석, 약물전달 기술 등 다양한 융합기술과 학문이 교류하는 국제 최대 규모 국제학술대회다. 시는 전남대, 광주관광컨벤션뷰로와 공동으로 유치조직위를 구성하고, 개최지 결정 권한을 지난 7월 시로 초청해 광주 국제회의 인프라를 현장감사하도록 했다. 학술대회 유치를 위해 서울, 제주, 광주 등 3개 도시가 열린 경합을 벌였으나 해외 주최기관을 꾸준히 설득하는 등 노력 끝에 유치가 성공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